

<박사학위논문 소개>

나홀로 여가 시간 및 활동 특성: 10대, 60대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Solitary Leisure Time and Activities: Focusing on Teenage and Elderly Male

저 자: 김 고 은 (Kim, Go-Eun)**

지도교수: 최 막 중 (Choi, Mack Joong)

최근 나홀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왔던 한국의 여가는 나홀로 여가의 증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 여가소외계층이 존재하지 않는지 진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4 생활시간조사를 토대로 나홀로 여가를 분석했으며, 계층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 성별, 가구원, 소득 변수를 다루었다. 특히 사회 변화 속 세대격차에 주목하기 위하여 연령과 성별 효과를 밝혀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나홀로 여가는 시간 측면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연령 면에서는 10대와 60대 이상, 성별 면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긴 나홀로 여가 시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령과 성별 변수의 상호작용항인 10대 남성과 60대 이상 남성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 중 10대 남성은 동반자와 장소 모두 소극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홀로 집안 여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60대 이상 남성은 상대적으로 나홀로 집밖 여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나홀로 여가의 활동적 특성에서는 여가를 세부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집안 여가 중에서는 10대 남성을 중심으로 온라인 속 인터넷·게임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집밖 여가 중에서는 60대 이상 남성들에게서 익숙한 해법으로서 걷기·산책·등산에 편중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무비용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인 걷기·산책·등산은 저소득 1인 가구의 경향이 강하였다. 동반여가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교제외식, 문화관광쇼핑에 주로 참여하였고, 60대 이상에서는 종교, 사회봉사의 비중도 높았다.

다음으로 양적 데이터로 살펴보기 어려웠던 나홀로 여가의 원인과 평가를 추가적인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로서 10대 남성의 인터넷·게임은 충분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미숙한 관계와 학업으로 인한 시간부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으며, 그들은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극단적 성향이 발현되었음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였다. 60대 이상 남성은 홀로 걷기·산책·등산을 하는 이유로 은퇴 이후 관계의 단절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에게 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나은 대안이 되었지만 혼자 놀기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 전통적 공동체가 사라진 도시 지역과 이웃 간 만남을 위한 부대시설이 부족한 비아파트 지역에서 나홀로 여가가 길게 나타났으며, 주요 계층인 10대와 60대 이상은 학업과 건강상의 이유로 멀리 위치한 여가시설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동네 단위 생활밀착형 여가공간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남성 노인들에게는 동네 질서관리, 방범활동 등 지역 중심 일자리를 확대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남성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학원가 등 생활공간 주변에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등 소규모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여 만남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나홀로 여가, 집안 여가, 집밖 여가

Keyword : Solitary Leisure, In-home & Out-of-home Leisure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김고은 (2018), '나홀로 여가 시간 및 활동 특성: 10대, 60대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를 요약한 것임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gon3205@hanmail.net